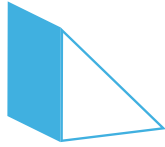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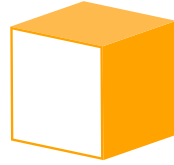


수



능



특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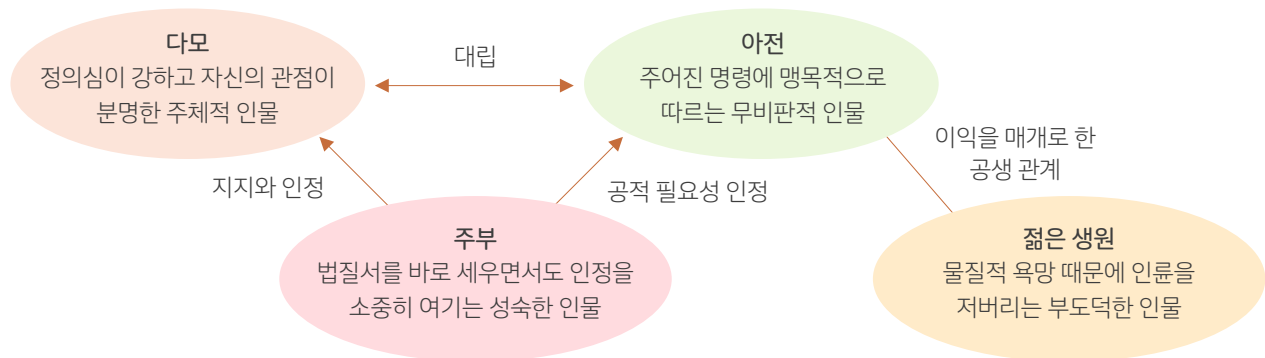


## 송지양, 「다모전(茶母傳)」

- 갈래 : 고전소설, 한문소설, 단편소설, 송사소설, 전계(傳係-한 인물의 행적을 담음)소설
- 성격 : 현실 비판적, 사실적
- 배경 : 시간적-임진년(1832) 금주령이 내린 시기, 공간적-한성부
- 주제 : 불쌍한 할머니의 잘못을 눈감아 주고, 부도덕한 양반을 꾸짖는 다모의 인품과 덕성
- 인물 :

다모	할머니의 딱한 사연을 듣고 그것을 숨겨 주려고 한다. 주부로부터 상금을 받게 되자, 그것을 흔쾌히 할머니에게 준다. → 옳고 그름에 관한 주관이 분명,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 정의롭고 주체적인 인물.
아전	다모에게 할머니를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다모가 젊은 생원을 때리는 것을 보고 할머니의 잘못을 숨겨 준 죄로 다모를 관청에 고발한다. → 형식적인 법령과 규정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타율적인 인물.
할머니	가난한 양반가의 사람으로 남편의 병을 구완하기 위해 술을 빚었다가 다모에게 발각된다. 후에 다모의 도움을 받는다.
시동생 (젊은 생원)	할머니의 시동생으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 할머니를 아전에게 고자질했다. → 패륜적 행위를 통해 물질적 욕망만을 채우는 인물.
주부	법에 따라 죄를 지은 다모를 처벌하지만, 다모의 착한 마음을 알고 따로 불러 상금을 준다. → 관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이는 인물.

• 인물간의 관계 :



### #EBS

**해제**

조선 후기의 문인 송지양이 지은 작품으로, 다모 김조이의 의로운 행적을 서술한 글이다. 조선 시대에는 상층 여성이 지은 범죄를 남자 관리들이 맡아 처리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한성부나 포도청에서 똑똑한 다모를 뽑아 여성 수사관의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작품의 주인공인 김조이는 다모라는 비천한 신분의 관리이지만, 정의심이 강하고 자신의 관점이 분명한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김조이는 법의 엄정한 집행이라는 공적인 책무와 불쌍한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라는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데, 이는 법을 위반한 행동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의(仁義)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 김조이를 통해 본받을 만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설이다.

**주제**

불쌍한 할머니의 잘못을 눈감아 주고, 부도덕한 양반을 꾸짖는 다모의 인품과 덕성

**전체 줄거리**

다모 김조이는 포도청에 소속되어 치안 및 범법자 단속과 관련한 일을 하는 인물이다. 어느 날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 범을 어기고 밀주를 빚은 몰락 양반가의 주인 할머니를 검거했으나 병든 남편의 병구완을 위해서였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눈감아 준다. 그 대신 포상금을 노리고 형수를 밀고한 시동생(젊은 생원)을 찾아가 뺨을 때리고 그 부도덕함을 꾸짖는다. 주부는 주인 할머니의 죄를 숨겨 준 죄목으로 다모를 태형에 처하나, 그녀의 의협심을 가상히 여겨 나중에 몰래 상금을 주며 칭찬한다. 다모는 그 상금을 모두 주인 할머니에게 주며 다시는 밀주를 빚지 말라고 당부한다.



# 송지양, 「다모전(茶母傳)」

김조이는 한성부(漢城府)\*의 다모(茶母)\*다.

↳ 충신인물

금주령(쌀을 양식으로만 사용하고 술을 빚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함) ↗

임진년(1832)에 경기와 호서 및 황해 세 곳에 큰 기근이 들어, 한성부에서는 **대소(大小)의 백성들에게 술을 빚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 시간적 배경, 삼도의 기근이 심한 시기

↳ 삼도의 기근, 사건의 발단

↳ 공간적 배경

↳ 모든 백성

내렸다. 이를 어기는 자는 죄의 **경중을 가려 유배를 보내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했다.** 아전으로서 **밀주(密酒)를 빚은 자를 일부러 감**

↳ 가법고 무거운 정도

↳ 몰래 담근 술

춰 주고 체포하지 않을 경우, 그 아전에게도 벌을 내리고 용서하지 않았다. 이에 아전들은 죄인을 잡지 못할까 걱정하다가 급기야 **백성들에게 밀주 빚은 자를 몰래 고해바치게 한 후 벌금의 10분의 2를 나누어 주었다.** 이런 까닭에 신고하는 자는 아주 많았으며 아전

↳ 밀주자 고발에 따른 포상금

들은 귀신같이 적발할 수 있었다. ↳ 포상금을 두고 이권에 개입한 부패한 관리들과 밀고를 임하는 무리들의 결탁-작품의 주된 창작 배경

어느 날 한성부의 아전 하나가 남산 아래 어느 거리의 외진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전은 다모를 가까이 부르더니 시내 위로 놓인 다리 끝에서 몇 번째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 밀주의 증거물 ↗

“저긴 양반 집이라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 네가 먼저 안채로 들어가 쓰레기를 뒤져 보고 **술지게미가 있거든** 고함을 치거라. 그러면 내가 당장 들어가마.” ↳ 남녀의 구별이 엄격한 당대 사회 모습-당대의 사회 제도와 문화적 관습

다모는 그 말대로 살금살금까지 걸음으로 들어가 집 안을 수색했다. 과연 석 되들이쪼끔 되는 항아리에 새로 늦가을에 담근 술이 들어 있었다.

↳ 밀주를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

다모가 항아리를 안고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땅에 엎어졌다.** 눈이 빛을 잃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지가 마비되고 얼굴이 파래졌다. 기절한 것이었다. **다모는 항아리를 내려놓고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뜨거운 물을 급히 가져다 입안으로 흘려 넣었다.** 잠시 후에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다모가 질책했다.

↳ 백성의 안전을 중시하는 다모의 인간적인 면모 ↗

“나라에서 내린 명령이 어떠한데 양반 신분인 분이 이처럼 범을 어긴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사죄하며 말했다.

↳ 고치기 어려운 벌 ↗

“우리 집 양반이 지병을 앓고 있는데, 술을 못 마시게 된 이후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병이 더욱 **고칠이** 됐네. **가을부터 겨울까지 며칠씩 밥도 못 짓고 살다가** 며칠 전에 마침 쌀 몇 되를 어디서 얻어 왔어. **노인의 병을 구원할** 생각으로 감히 범을 어겨 술을 빚고 말았지

↳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의 모습

↳ 밀주의 이유

↳ 아픈 사람이나 해산한 사람을 간호함

만, 어찌 잡힐 줄 생각이나 했겠나. 선한 마음을 가진 보살께서 제발 우리 사정을 불쌍히 보아 주시기 바랄 뿐이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꼭 갚겠네.”

**다모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항아리를 안고 가서 잿더미에 술을 쏟아 버렸다.** 그리고는 사발을 하나 손에 들고 문밖으로 나왔다.

↳ 측은지심(惻隱之心)

↳ 밀주 증거물 없앴

아전은 다모를 보고 물었다.

“어찌 됐느냐?”

다모는 웃으며 말했다.

“**술 담근 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송장이 나오게 생겼소.**” ↳ 주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동정하여 밀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하는 행동

다모는 곧장 죽 파는 가게로 가서 죽 한 그릇을 산 뒤 다시 양반 댁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죽을 건네주었다.

“할머니가 음식도 못 해 잡수신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 드리는 겁니다.”

다모는 그렇게 말한 뒤 **여기서 몰래 술 담근 걸 누가 또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 밀고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물음

↳ 밀고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할머니에게 **시동생인 젊은 생원이 술 담근 걸 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온 다모는 아전에게 양반 집에 술이 없었다고 거짓말한다. 한성부 앞에서 할머니를 고자질한 시동생을 만난 다모는 그의 따귀를 때린다.

다모는 손을 쳐들어 생원의 따귀를 때리더니 침을 뱉으며 꾸짖었다.

↳ 비인륜적인 양반(시동생인 생원)의 행위 비판

“**네가 양반이냐? 양반이란 자가 형수가 몰래 술을 담갔다고 고자질하고는 포상금을 받아먹으려 했던 말이나**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들 주변을 빙 둘러서서 구경을 했다. 아전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주인 할멈의 사주를 받아 나를 속이고 술 빚은 걸 숨겨 주고는 도리어 고발한 사람을 꾸짖어**”

↳ 아전의 이중성-표면법정서 지키려는 모습, 이면: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아전은 다모를 붙잡아 주부\* 앞에 가서 다모의 죄를 고해바쳤다. 주부가 심문하자 다모는 사실대로 모두 자백했다. 주부는 성이 난 척하며 말했다.

↳ 벌

“**술 담근 일을 숨겨 준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곧장 20대를 쳐라!**” ↳ 다모의 행동을 이해하나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행동

오후 6시 무렵 관청 일이 끝나자 주부는 조용히 다모를 따로 불러 **엮진 열 께미\***를 주며 말했다.

↳ 상

“네가 숨겨 준 일을 내가 용서해서는 법이 서지 않기에 곧장을 치게 했다만, **너는 의인이로구나. 참 가늠하다 여겨 상을 내리는 것이** **다.**” ↳ 다모가 의로운 사람임을 알아봄

다모는 돈을 가지고 밤에 남산의 그 양반 댁으로 가서 주인 할머니에게 건넸다.

“제가 관청에 거짓 보고를 했으니 곧장 맞는 거야 당연한 일입니다만, 할머니가 술을 담그지 않으셨더라면 이 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 송지양, 「다모전(茶母傳)」

니까? 그러니 이 상은 할머니께 돌려드릴게요. 제가 보니 할머니는 겨우내 춥게 지내시는 모양인데, 이 1천 전\* 돈으로 받은 땀나무를 사고 받은 쌀을 사시면 추위와 굶주림 없이 겨울을 나시기에 충분할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절대 술을 담그지 마셔야 합니다.”

주인 할머니의 힘든 처지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며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모습. 다모의 선하고 정의로운 품성이 드러남.

주인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돈을 사양했다.

“다모가 우리 사정을 봐 준 덕택에 벌금을 면하게 된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무슨 낮으로 이 돈을 받는 단 말인가” 할머니가 굳이 사양하며 한참 동안이나 받지 않자 다모는 할머니 앞에 돈을 밀어 두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 한성부: 조선 시대에, 서울의 행정·사법을 맡아보던 관아.

\* 다모: 조선 시대에, 일반 관아에서 차와 술대접 등의 잡일을 맡아 하던 관비. 한성부나 포도청의 다모는 수사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음.

\* 주부: 조선 시대에, 각 아문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육품 벼슬.

\* 열전 열 꿩미: 열 냥.

\* 1천 전: 동전 1천 개이니, 열 냥에 해당함.

### 작품의 특징

- 실정법에 앞서는 인륜의 도리를 보다 중요한 미덕으로 내세움.
- 단속 위주의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미풍약속의 권장을 바탕으로 한 교화적 통치 이념의 구현을 강조함.
- 인물간의 대립과 공생 관계를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당대 이기주의와 배금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비판함.
- 조선 후기 경제력을 잃은 몰락 양반(잔반)이 있었음을 드러냄.
-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재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 사회적 분위기를 드러냄.



## 작자 미상, 「도미(都彌) 설화」

- 갈래 : 관탈 민녀형(官奪民女型) 설화, 열녀 설화
- 성격 : 교훈적, 저항적, 서사적
- 제재 : 도미 부인의 정절
- 주제 : 도미 아내의 절개와 지배층의 횡포

### #EBS

#### 해제

이 작품은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이야기로, 왕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절개를 지킨, 도미의 아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열녀 설화이다. 등장인물인 도미 부부와 개루왕의 모습을 통해 지배층의 횡포와 당시 사회의 가치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개루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절개를 부정하고 훼손하려 하며, 도미의 아내는 기지를 발휘하여 이러한 왕의 횡포에서 벗어나 절개를 지키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여인의 절개와 그러한 절개를 통해 유지되는 부부간의 신뢰가 왕의 명령보다 앞서는 것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주제

도미 아내의 절개와 지배층의 횡포

#### 전체 줄거리

백제 사람인 도미의 아내는 아름답고 절행이 있어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개루왕이 도미의 아내를 시험하고자, 신하에게 왕의 옷을 입혀 도미의 아내에게 보내 정절을 훼손하려고 했으나 도미의 아내는 여종을 대신 들여보내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에 속은 것을 알게 된 개루왕은 도미의 눈을 뺏 후 배에 태워 멀리 띄워 보낸 후 도미의 아내를 억지로 불러들였다. 이에 도미의 아내는 목욕을 핑계로 왕에게서 벗어난 후 곧바로 도망하였다. 도미의 아내가 강에 이르러 통곡하자 배 한 척이 갑자기 나타나고, 도미의 아내는 그 배를 타고 천성도에서 도미를 만난 후 고구려로 건너가서 여생을 마쳤다.



## 작자 미상, 「도미(都彌) 설화」

도미(都彌)는 백제인이었다. 비록 **벽촌**의 보잘것없는 백성이지만 자못 의리를 알며 그 아내는 아름답고도 **절개가 있어**, 당시 사람들  
외따로 떨어져 있는 궁벽한 마을 개루왕이 도미의 부인을 시험하는 계기  
 의 칭찬을 받았다. **개루왕**이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기를 “무릇 부인의 덕은 정결이 제일이지만,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  
백제의 4대왕.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부당한 권력자 개루왕의 여성에 대한 불신. 인간 부정의 태도  
**은 말로 꾀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사람의 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를 시험하려고 일이 있다 하여 도미를 머물게 하고, 가까운 신하 한  
도미의 아내에 대한 신뢰. 인간 궁정의 태도  
 사람에게 왕의 의복과 말·**종자**를 빌려주어 밤에 그 집에 가게 했는데, 먼저 사람을 시켜 왕이 온다고 알렸다. 가짜 왕이 와서 그 부인  
남에게 충속되어 따라다니는 사람  
 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도미와 내기 장기를 두어 이겼다. **내일은 너를 데려다 궁녀로 삼을 것이다.**”  
여성을 내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당대의 시각 개루왕의 횡포 ①  
 라고 하면서 어지러이 굴러고 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국왕에겐 망령된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도미 부인의 지혜 ①  
**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소서. 내가 옷을 고쳐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물러와 **한 여종을 단장시켜 들어가 수청을 들게 하**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아랫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 신분 차이가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요인.  
**였다.** 후에 개루왕이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를 죄로 얹어 두 눈동자를 빼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어 작은 배에 싣고 물 위에 띄워**  
개루왕의 횡포 ②  
**보냈다.** 그리고 그 부인을 억지로 불러들였는데, 부인이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왕  
 을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몸이 좋지 않으니 다른 날 깨끗이 목욕하고 오겠습니다.**” 하니, 왕  
도미 부인의 지혜 ②  
 이 믿고 허락하였다. 부인은 바로 도망하여 강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너갈 수가 없어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는 중 홀연히 한 척의 배가  
 물결을 따라 오는 것을 보았다. 그 배를 타고 **천성도(泉城島)**에 이르러 그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아니 하였다. 풀뿌리를 캐어 먹  
한강 하류에 있던 섬  
 으며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산(蒜山)** 아래에 이르니,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음식과 옷을 주어 구차스럽게 살면서  
고구려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다.**

## 작품의 특징

- 지배계층의 횡포와 그에 대한 저항정신이 드러남.
- 주동 인물은 도미 부인과 반동 인물인 ‘왕(절대 권력)’의 대립을 통해 도미 부인의 정절을 강조함,
- 도미 부부와 백제 개루왕의 갈등을 통해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을 받는 당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 반영함.
- 절대 권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민중의 건강한 삶이 드러남.
- 자신 대신 왕의 수청을 들라는 도미 부인의 명령을 따르는 여종의 모습에서 신분의 차이가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요인이 됨을 드러냄.
- 열녀 설화의 원형으로 후대 ‘춘향전’ 등에 영향을 미침.



## 작자 미상, 「설씨녀(薛氏女) 설화」

- 갈래 : 민간설화(민담), 신물(信物) 설화
- 성격 : 교훈적, 일화적, 낭만적
- 배경 : 시간적-신라 진평왕 때, 공간적-신라 울리
- 주제 : 가실과 설씨의 사랑과 신뢰
- 소재 : 거울: 가실과 설씨녀의 사랑의 징표이자 행복한 결말을 위한 신표

### #EBS

#### 해제

이 작품은 『삼국사기』에 「설씨조(薛氏條)」로 수록되어 전해지는 이야기로, 가실과 설씨녀가 고난을 극복하고 혼인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설화이다. 반으로 쪼개었던 거울을 신표로 하여 헤어졌던 남녀 주인공이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 신물(信物) 설화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 주제

가실과 설씨녀의 사랑과 신뢰

#### 전체 줄거리

신라 진평왕 때 울리에 설 씨라는 노인이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설 씨는 늙은 나이임에도 수자리(국경을 지키는 일)를 떠나야 했고, 효성이 지극한 설씨녀는 그러한 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걱정이 컸다. 그러자 평소 설씨녀를 좋아했던 이웃 사람인 가실은 설 씨를 대신하여 변방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이에 설 씨는 가실과 설씨녀의 장래를 약속하였다. 설씨녀는 거울을 반으로 쪼개 가실에게 건네주고, 가실은 말 한 필을 설씨녀에게 맡기고 수자리를 떠난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 가실이 돌아오지 않자 설 씨는 다른 사람에게 설씨녀를 혼인시키려 하고, 설씨녀는 이러한 설 씨의 생각에 반대하여 도망하려 하지만 실패한 후 낙담한다. 마침내 6년 만에 가실이 돌아왔으나 물결이 너무 초라하여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지만, 설씨녀는 가실이 건넨 거울을 자신의 거울과 맞추어 본 후, 그가 가실임을 알게 된다. 그 후 두 사람은 혼인하여 일생을 해로한다.



## 작자 미상, 「설씨녀(薛氏女) 설화」

설씨녀는 **율리(栗里)**의 평민 여성이다. 비록 **한미**하고 **고단**한 집안이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과 행실이 의젓하였다. 보는 이들이 **그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감히 **범접하지 못하였다**. 진평왕 때에 **그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데도** 정곡(正谷)에서 **수자**

**리\*** 살 차례가 되었는데, 딸은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었으므로 차마 멀리 떠나보낼 수 없고, 또 여자의 몸이라 대신해 갈 수도 없어, **당대 사회상-백성들이 군역으로 고생을 겪음.**

극심하게 빈민하기만 하였다. 이때 사량부(沙梁部)의 젊은이 가실(嘉實)이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나 마음가짐은 곧은 남자로서, 일찍부터 마음속으로 설씨녀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설씨녀가 아버지가 늙어 **종군**하게 된 일을 근심한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의 처지로 인해** **군대를 따라 전쟁으로 나갈.**

는 말을 듣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한낱 **용렬**한 남자이지만 일찍부터 의지와 기개로써 자처하여 왔으니, **불초한** 몸으로 아버님 일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현신적인 가실의 성품**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출렬하다** **못하고 어리석다.** 대신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다. 설씨녀가 매우 기뻐하여 들어가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아버지가 이끌어 말하기를 “그대가 이 노인을 대신하여 가려 한다 하니 **기쁘고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무엇으로 갚을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아서**

생각하는데, 만일 그대가 나의 어린 딸을 어리석고 누추하다 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아내로 삼아 그대를 받들게 하고 싶다.”라고 하니, 가실이 두 번 절하고 “감히 정할 수 없는 일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가실이 물러 나와 혼인할 기약을 청하니 설씨녀가 말하기를

“혼인은 인간의 윤리라 **창졸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허락한 이상 죽어도 변하지는 않겠으니, 그대가 수자리 살러 **미처 어찌할 수 없이 매우 급작스러운 사이.**

갔다 교대하여 돌아온 후에, 날을 받아 **성례**하여도 늦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울**을 가져다 절반씩 나누어 각기 한 조각씩을 가지 **혼인의 예식을 지냄** **약속의 징표(신표)**

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신표**를 삼는 것이니 후일에 합하여 봅시다.”라고 하였다. 가실은 **말한 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씨녀에게 이 **뒷날에 보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는 물건.** **설씨녀에 대한 가실의 사랑의 증표**

르기를 “이것은 천하의 좋은 말이니, 후에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요. 지금 내가 간 뒤에 이 말을 기를 사람이 없으니 간직해 두었다가 소용이 되게 하시오.” 하고 작별하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나라에는 사유가 있어 군사들을 교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실은 6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기를 “**처음에 3년으로 기약을 하였는데, 지금 기한이 넘었으니 다른 집으로 시집가야 하겠다**.”라고 하였다. 설씨녀가 “**예전**

에 아버지를 편안케 하기 위하여 가실과 굳게 약속하였고, 가실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종군하여 여러 해 동안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경에 바짝 가 있어 손에 병기를 놓지 않고, 범의 아가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물릴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신의를 저버리고 식언하는 것이 어찌 인정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감히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사오니 다시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이 늙고 딸이 장성했지만 배필이 없다고 하여, 억지로 시집을 보내려 하여 비밀히 마을 사람과 혼인을 약속하였다. 이미 날을 정하여 그 사람을 맞아들이니, 설씨녀는 굳게 거절하고 몰래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마구간에 가서 가실이 두고 간 말을 보고 크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다**. 이때에 가실이 교대되어 왔는데 뻘만 남도록 **가실과의 신의를 지킬 수 없게 되어서**

마르고 옷이 **남루**하여 집안사람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실이 바로 앞에 **쪼개진 거울**을 던지니, 설씨녀가 받아 가 **옷 따위가 남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가실임을 증명하는 신표**

지고 소리 내어 울었으며, 아버지와 집안사람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마침내 다른 날을 정하여 혼인하고 일생을 **해로**하였다.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며 함께 늙음.**

\* 수자리: 국경을 지키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병사를 이르던 말.

## 작품의 특징

- 노쇠하고 병들었음에도 수자리를 살아야 하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설씨녀의 모습에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국가에 대한 의무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음을 드러냄.
- 설씨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을 사람과의 혼인이 진행되는 모습에서 집안일을 결정할 때 당사자 개인의 생각보다 가부장적인 권위가 우선시되었음을 드러냄.
- 약속한 바를 끝까지 지키는 설씨녀의 모습을 통해 신의(信義)를 강조함.
- 빈번한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고난을 제시함.
- 위기에 몰린 설씨녀와 가실의 사랑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사적 구조가 뚜렷함
- 신물(信物)을 통해 행복한 결말로 연결함.





## 설총, 「화왕계(花王戒)」

- 갈래 : 설화(창작 설화)
- 성격 : 풍자적, 우언(寓言)적, 우의적, 교훈적
- 배경 : 꽃(모란, 장미, 할미꽃)
- 주제 : 임금에 대한 우의적 충간
- 인물 :

말하기 방식

장미	백두옹
아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로 화왕의 관심을 사려는 말하기 방식. 자신의 삶에 자긍심 표출하는 말하기 방식.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며 궁할 때를 대비해야 함을 총언하는 말하기 방식.

대조① 외양 묘사와 상징

장미		백두옹
붉은 얼굴, 옥 같은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옷 방랑하는 무희처럼 안전한 걸음	↔	백발, 지팡이 베옷, 가죽띠 둔중한 걸음
↓		↓
젊음, 화려함 유혹하는 듯한 걸음		늙음, 초라함. 무게감 있는 신중한 걸음.
↓		↓
간신		총신

대조② 거주 공간

장미		백두옹
설백(雪白)의 모래사장 맑은 바다	↔	서울 밖 한길 옆 창망한 들판, 우뚝 솟은 산

### #EBS

#### 해제

이 작품은 『삼국사기』의 열전에서 설총에 대해 기록한 부분에 언급된다. 어느 여름날 신문왕이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청하자 설총이 왕에게 해 준 이야기로, 원래 제목이 없으며 ‘화왕계’는 후대 사람들이 붙인 명칭이다. 이 작품은 왕에게 바른 도리로 정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꽃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계를 빗대고, 우언으로 완곡하게 전달하는 문학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고려 시대의 가전체(假傳體) 문학과 조선 중기 의인체 소설의 선구적 위치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문학적 의의가 매우 큰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은 우리나라 꽃에 대한 소중한 사료로서도 큰 가치를 가진다.

#### 주제

임금에 대한 우의적 충간

#### 구성

- ▶ 발단: 화왕의 등장
- ▶ 전개: 간신 장미와 총신 백두옹의 간청
- ▶ 절정: 장미와 백두옹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왕
- ▶ 결말: 백두옹의 설득과 화왕의 뉘우침



## 설총, 「화왕계(花王戒)」

화왕(花王)이 처음 이 세상에 왔다. 모란이었다.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치고선 임금님으로 받들어 모셨다.

↳ 꽃의 왕=모란. 우의적 기법

마야흐로 따스한 봄이 돌아왔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화왕은 곱고 탐스러운 꽃을 피웠다. 꽃 중의 꽃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다투어 화왕을 뵈러 왔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의 맑은 정기를 타고난 탐스러운 꽃들과 양지바른 동산에서 싱그러운 향기를 맡으며 피어난 꽃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 화왕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 들.

문득 한 가인이 앞으로 나왔다. 붉은 얼굴과 옥 같은 이에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옷을 차려입고, 방랑하는 무희처럼 압전하  
↳ 아름다운 사람. ↳ 장미의 외양 묘사. 화려한 외모와 유혹의 몸짓을 하여 등장

게 걸어 나왔다. 가인은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 몸은 설백(雪白)의 모래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목욕하여 몸의 먼지를 씻고,  
↳ 장미의 성장 환경. ↳ 자신(장미)의 정갈함을 드러내려는 의도.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름은 장미(薔薇)라 하옵니다. 전하의 높으신 덕을 듣자옵고, 꽃  
↳ 간신 ↳ 장미의 아칭. 교언영색(巧言令色)

다운 침소에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 왔습니다. 전하께서 이 몸을 받아 주실는지요”

이때,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머리에는 백발을 인 장부 하나가 둔중한 걸음으로 나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 백두옹의 외양 묘사. 베옷, 가죽띠(검소한 옷차림), 지팡이, 백발(연륜, 원수). 포의한사(布衣寒士)

“이 몸은 서울 밖 한길 옆에 사는 늙은이로서 이름은 백두옹(白頭翁)이라 하옵니다.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 향미꽃=충신. 작가(설총)의 말을 대변하는 인물(우언적) ↳ 백두옹이 사는 곳.

솟은 산 경치를 의지하고 있습지요. 가만히 보건대,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진미(膏粱珍味)와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 기층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

받들어 전하의 식성을 흡족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보자기를 풀어, 좋은 약으로는 전하의 양기를 돕고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전하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 올려야 할 줄 아옵니다. 그래서 말하  
↳ 충간(쓴소리). 쓴소리가 임금의 정치에 유익함을 빗대어 표현.

기를, ‘비록 명주나 삼베가 있어도 군자 된 자는 거적이나 띠풀이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 하옵니  
↳ 최선의 인재나 대비책(최선책) ↳ 최선의 인재의 대비책(차선책) ↳ 유비무환(有備無患)

다. 전하께서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백두옹의 충언

한 신하가 아뢰었다.

“두 사람이 왔는데, 전하께서는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 화왕의 선택에 대해 질문. 화왕의 갈등 유발.

화왕이 입을 열었다.

백두옹과 장미 사이의 선택을 두고 망설이는 화왕. ↷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긴 하나 가인은 얻기 어려우니 어찌할꼬”

장부가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화왕에 대해 장부가 평가하여 직언함. ↷

“제가 온 것은 전하의 총명이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으나 지금 뵈오니 그렇지 않으시군요. 대체로 임금  
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맹자(孟子)는 불우한 가운데  
↳ 많은 임금들이 간신을 가까이하고 충신을 멀리했다는 비판. ↳ 임금이 가까이 해야 할 신하

일생을 마쳤고, 풍당(馮唐)은 낭관으로 파묻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예부터 이러하오니 전들 어찌하오리까.”

↳ 임금이 가까이 해야 할 신하

↳ 임금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재가 크게 쓰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함 → 올바른 인재 등용을 권함. 고사 인용

화왕은 비로소 깨달은 듯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 화왕의 반성

## 작품의 특징

-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냄.
- 꽃을 의인화하여 임금을 충고하는 풍자적인 내용임.
- 우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곡하게 드러냄.
-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냄.
- 공간적 배경에 대한 감각적 묘사가 나타남.
- 고사(古事)를 인용하여 교훈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이 설화의 가전적(假傳的) 요소가 고려의 가전체에 영향을 줌.
- 구토설화(龜兔說話)와 함께 의인체 설화의 효시임.



## 유방선, 「김 장관 덕 죽헌기(金場官宅竹軒記)」

- 갈래 : 고전산문(기)
- 성격 : 교훈적, 비유적, 예찬적
- 제재 : 김 장관 덕 죽헌과 대나무
- 주제 : 대나무를 가까이하며 사랑하는 김영지의 삶에 대한 예찬과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고 싶은 마음
- 소재 :

### 대나무의 상징성

사계절 변함 없음 → 홀로 특색 보존함.
곧음 → 풍속을 고칠 만 함.
건강함 → 능히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 만함.
고고함 → 속되지 않음.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음. → 절개로 변함없이 빛이남.

### 자연물의 대조

대나무	↔	오얏, 연꽃, 국화, 매화
사계절 변하지 않음. 귀하게 여기지 않음. 곧고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여 속되지 않음. 붉은색의 현란함과 향기가 없음.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게 하고 선비의 행실이 다들어짐. 사랑하는 사람이 적음		봄과 여름의 구경거리로 삼고, 가을과 겨울의 완상으로 삼음. 부귀한 사람에게 어울리고, 풍월을 읊는 데에 소중할 따름임. 곱고 아름다움, 향기로운 사치할 마음과 간사한 뜻이 생기게 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함.
↓		↓
절개 군자의 모습 '김영지'의 삶의 모습 긍정적, 예찬적		방탕, 음란 소인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 부정적

## #EBS

### 해제

이 작품은 『동문선』에 실려 전하는 기(記)로, 글쓴이가 한 선비가 지은 누각 '죽헌'에 걸기 위해 쓴 것이다. 글쓴이는 대나무를 벗 삼아 가까이하여 지내며 대나무의 미덕을 본받고 살아가는 선비 김영지의 삶을 예찬한다. 대나무가 가진 덕은 화사하지는 않지만 고고하고 절개가 곧은 것인데, 사람들은 겉모습이 화려한 오얏, 연꽃, 국화, 매화는 완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대나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를 타하면서 글쓴이는 김영지의 삶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주제

대나무를 가까이하며 사랑하는 김영지의 삶에 대한 예찬과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고

### 구성

- ▶ 처음: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죽헌'을 짓고 사는 김영지에 대한 소개
- ▶ 중간: 대나무가 가진 속성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덕성을 칭찬하고 대나무를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들을 타함.
- ▶ 끝: 김영지를 사랑하는 까닭과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힘.



# 유방선, 「김 장관 대 죽헌기(金場官宅竹軒記)」

영천(永川)의 토질은 대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여, 민가에서는 대를 심어 가꾸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기도 한다. 온 고을이 다 그러하나 그들은 대나무의 본성을 진실로 깊이 알지는 못할 것이다.

전 장관 김영지는 **사족(士族)**으로 본래 대나무를 사랑하였다. **해직한 뒤로부터 고향에 물러앉아 남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선비의 집안 또는 그 자손 「영명지」의 현재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

이수의 남쪽에 터를 잡아 **침실 동쪽에 정자를 짓고 대를 곁에 심었다.** 그리고 그것을 편안히 쉬는 거처로 정함과 동시에 그 이름을 **‘죽헌(竹軒)’**이라 하였다.  
전 장관 김영지의 누각 대나무의 속성 ① 불변성

무릇 대나무란 **네 계절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온갖 초목 가운데 홀로 특색을 보존한다.** 그 곧은 것은 능히 풍속을 고칠 만하고 그 견장한 것은 능히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 만하다. **겨울에는 눈 속에서 그 차가운 소리가 창에 뿌리고, 여름에는 바람 속에서 서늘한 기**  
대나무의 속성 ② 곧고 견장함 청각적, 촉각적 이미지, 대꾸

운이 **탑 자리에 가득하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대상의 아름다움 부각(비유적, 묘사적).  
연기와 아지랑이가 자욱하여 **소상강이 눈앞에 있는 것과 같고, 별과 달이 비치고 빛나서 상쾌한 것은 마치 선경이 사람의 정신을 율화하게 하는 것 같다.** 시를 읊으면 흥취가 더욱 더해지고 귀한 손님을 대하면 오가는 말소리가 따라서 맑아지니, 이것이 다 **누각 죽헌의 공이다.** 「영명지」가 지은 죽헌에 대해 칭찬하여 이유를 밝힘.

세상이 **오얏과 연꽃을 봄과 여름의 구경거리로 삼고, 국화나 매화를 가을과 겨울의 완상으로 삼지만** **간혹 대나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오얏과 연꽃은 부귀한 사람에게 어울리고, 국화나 매화는 똑같이 풍월을 읊는 데에 소중할 따름이다. **대나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꽃 대꾸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풍조 대꾸

는 **곧고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여 속되지 않다.** 또한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은 절개로 예나 지금이나 같은 빛이다.**  
대나무의 속성 ③ 고고하여 속되지 않음 대나무의 속성 ④ 변함없는 절개  
세상 사람은 대개 위와 같이 **이것들의** 자태의 곱고 아름다움과 이슬에 젖은 꽃망울의 향기만을 사랑하여, 자기도 모르게 사치할 마

음과 간사한 뜻이 생겨 방탕하고 음란함에 빠지는 줄을 알지 못한다.  
아,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 **대나무를 보면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진다.**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으면 **선비의 행실이 다듬어진**  
대나무의 속성으로 선비의 행실을 다듬음.

**다.** 비나 이슬은 그 화려함을 대나무에 보태 주지 못하고, 바람과 서리는 대나무의 절개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대나무에는 붉은색의 현란함과 향기가 없는 까닭에,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다.** 비유하자면 소인이 사람을 대할 때면 **그 안색을 갖추고 그 언어를 비위에 맞게 하여 대하므로** 아부하는 자가 많은 반면에,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는 것을 높게 하면서 점잖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적은 것과 같다.** 이로 보아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당연하다.  
교언명색(巧言令色)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로부터 군자를 '따르는 자가 적은' 이유를 유추함.  
전 장관 김영지 유추. 군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를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에 빗댄 것.

지금 **김 군이** 홀로 대나무를 사랑하여 이를 정원에 심고, 밤낮으로 대하며 성정을 가꾸고 더러운 것을 씻고 있다. 따라서 **그 가슴속의 맑고 더러움은 진실로 이미 구별되었을 것이다.** → 「영명지」의 행위로부터 그의 고결한 성품을 짐작함.  
대나무를 사랑하는 '김 군'의 삶은 곧 대나무가 가진 '절개를 본받'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연결됨. 대나무와 같이 '임금을 섬기면 그 충성은 변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면 그 효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남.

그가 **대나무의 절개를 본받아** 임금을 섬기면 **그 충성은 변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면 **그 효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그의 이런 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유교의 기본 윤리 ① 유교의 기본 윤리 ②  
나는 남쪽으로 귀양살이를 갔을 때, 운 좋게 **그 누각을 한 번 가서 보고,** **김 군의 삶을 고상하게 여겼었다.** 이 때문에 나는 내 글이 **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지어 그 누각에 걸게 하려 한다.** 죽헌 글을 쓴 이유.

## 작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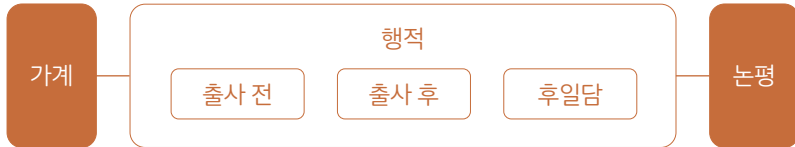
-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냄.
- 대나무를 오얏, 연꽃 등과 대조함으로써 선비들의 이상인 군자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냄.
- 공간적 배경에 대한 감각적 묘사가 나타남.
- 글쓴이가 직접적인 경험('나'가 '남쪽으로 귀양살이를 갔을 때' 김 군의 '죽헌'을 방문)이 드러남.
- 글을 쓴 특정된 목적('나는 '김 군의 삶을 고상하게 여겨서 그 뜻을 글로 지어서 누각에 걸기 위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자연물을 대조하여 대상의 특성을 강조함.
- 자연물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남.
- 유추를 통해 세대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냄.
- 김영지의 군자와 같은 삶과 대나무의 속성을 예찬함.



## 임춘, 「국순전(麴醇傳)」

- 갈래 : 가전체
- 성격 : 풍자적, 교훈적, 우의적, 전기(傳記)적
- 제재 : 술(누룩)
- 주제 : 부패한 정치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 가전체 :

가전(假傳)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傳)의 형식으로 서술한 글로서 인물의 가계와 성품, 생애, 공과(功過)등을 '가계 - 행적 - 논평'이라는 틀 속에 담아내었다. 내용상으로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세상을 경계(警戒)하려는 성격이 강해 교훈성을 지닌다.



### #EBS

#### 해제

이 작품은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로, 술의 내력과 부패하고 타락한 신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술의 양면성, 바람직한 신하의 도리와 올바른 인재 등용 방식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도입-전개-비평'의 전(傳) 형식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가전체 문학의 효시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 주제

부패한 정치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 구성

- ▶ 도입: 순의 조상 모(牟)는 성품이 청렴하고 백성들의 삶에 공을 세워 관직에 진출하게 된다. 국순의 아버지 주(酎) 역시 이름을 떨치다가 죽림으로 돌아와 여생을 마친다.
- ▶ 전개: 국순은 도량이 크고 넓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진나라 후주 때에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서 임금에게 간언하지 않고 재물 모으기에 힘쓴다. 순의 입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하게 된 임금은 관직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이에 순은 관직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뒤, 갑자기 병이 생겨 죽고 만다.
- ▶ 비평: 사신은 순으로 인해 왕실이 혼란해졌다며 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임춘, 「국순전(麴醇傳)」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예전에 이름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풍습이 있어서 흔히 장가든 뒤에 본이름 대신으로 불렀음.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다. 그의 선조는 **농서(隴西)** 지역 출신이다. 국순의 90대 조상인 **모(牟)**는 **후직(后稷)**을 도와서 땅

『술'을 의미화한 말. 국(麴)=누룩, 순(醇)=술. 진·한 시대 군 이름.』 국순의 조상.』 중국 주나라의 시조. 순임금을 섬겨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그 공으로 후작이라는 벼슬에 오름.

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한 공로가 있었다. 『시경(詩經)』에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었구나.”라고 한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

는 것이다. 모는 처음에는 숨어서 벼슬하지 않고서 “**나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 먹고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골에서 살았다. 뒷날 임

금이 모의 소문을 듣고, **조서**를 내려 안거(安車)\*를 보내 모를 불렀다. 그리고 임금이 지방에 명령을 내려 모가 가는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모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다. 그러자 모는 사람들의 귀친을 가리지 않고 친분을 맺었으며,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감추고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다. 이에 훈훈한 기운이 사람들에게 점점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온전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러자 모는 기뻐하면서 “나를 완성하는 것은 벗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 옳구나.”라고 말했다. 점점 모의 맑은 덕이 알려지면서, 임금님이 모의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주었다. 그 뒤 모는 임금을 따라 **환구**에서 제사를

지냈다. 임금은 그 공으로 모를 중산후(中山侯)로 책봉하고, **식읍(食邑)** 1만 호와 식실봉(食實封) 5천 호를 내려 주었으며, 국씨(麴氏)라는 성을 하사했다.

**모의 5세손은 성왕(成王)**을 도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태평성대를 이룩했다. 그러나 **강왕(康王)**이 즉위한 뒤,

**모의 5세손을 홀대하여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모의 5세손의 후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졌고, **모두 민간에 숨어 살게 되었다.**

만 이량의 푸른 물결이라는 뜻으로,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이르는 말.』 (중략) 『본래부터 아주 맑은 술이라는 의미.

순(醇)의 재주와 도량이 크고 깊으며 넓기가 **만경창파(萬頃蒼波)**와 같아,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혼들어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풍류적인 성격은 한 시대를 기울게 했고, 사람들에게 기운을 매우 더해 주었다. 순이 **섭법사(藥法師)\***에게 나아가

하루 종일 담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 한 사람들을 모두 졸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 사람들이

순을 **국처사(麴處士)**라 했다. **공경대부, 신선, 방사(方士)**로부터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인까지 **순의 향기와 이름을 마신 사람은 모**

**두 순을 사모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매번 성대하게 모일 때마다 순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여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라고 말했으니, **사람들이 순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태위 산도(山濤)\*가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 어떤 늙은 할미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는가? 천하 사**

**람들을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은 바로 이 아이가 틀림없다.**”라고 했다. **공부(公府)**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靑州從事)\*로 임명했으

나, 위가 막히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그리하여 **평원독우(平原督郵)\*로 벼슬을 고쳤다.** 순이 오래 있다가 **한탄** 하

기를, “내가 닳 되는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 **시골의 어린아이**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며, 마땅히 술 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할 뿐

이다.”라고 했다. 그때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사람이** 순에게 “그대는 붉은 기운이 얼굴에 있으니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천종록(千鐘**

**祿)**을 누릴 것이다. 마땅히 기다려 좋은 값에 팔라.”라고 말했다.

진(陳)나라 후주(後主) 때에 좋은 집의 자식들을 주객원외랑(主客員外郎)으로 임명했다. 당시 임금이 순의 사람됨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순을 크게 쓸 뜻이 있었다. 그리하여 **금으로 사발을 덮어** 순을 선발해 광록대부(光祿大夫) 예빈경(禮賓卿)에 임명하고 작(爵)\*

을 올려 공(公)으로 삼았다. 무릇 임금과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임금이 반드시 순으로 하여금 그것을 짐작하도록 했다.** 순이 나

아가고 물러나고 응대하는 것이 조용히 뜻에 맞으니, 임금이 순의 의견을 널리 수용하면서, “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곧고 맑아, **내 마음**

**을 열어 주고 내 마음을 풍부하게 해 주는구려.**”라고 했다. 순이 권력을 잡은 뒤 어진 사람과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고 늙은 사람들

에게 음식을 주었으며,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종묘에 제사 지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임금이 술을 아끼게 된 이유. 술의 순기능.』 『고사나 제사 지낼 때 술이 사용되었다는 의미.』



# 임춘, 「국순전(麴醇傳)」

임금이 저녁에 연회를 베풀면서 순과 궁인(宮人)들만 참석하게 하고, 비록 가까운 신하라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부터 임금이 주사에 빠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순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순을 원수처럼 미워**

함구무언(緘口無言). ↳ 나랏일을 돌보지 않는 임금에게 신하로서 간언(諫言)을 해야 하는데도 아무말하지 않는 부정적 모습. ↳ 그릇된 인재 등용 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당대 선비들의 모습.

**했지만, 임금이 매번 순을 보호했다. 순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좋아하고 재산을 모으는 데 힘을 쓰니, 당시의 여문들이 순을 비천하**

↳ 임금이 술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 ↳ 국순전 이 술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신하와 임금의 관계)도 다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 ↳ 술이 인간을 망치듯, 충언을 하지 않는 순을 통해 임금의 비위만 맞추는 간신이 임금을 망치는 상황을 드러내어 비판함. ↳ 중국 진나라의 무장. ↳ 타락한 신하로서의 순의 모습.

**다고 했다. 임금이 순에게 “그대는 어떤 버릇이 있는가”라고 물으니, 순은 “옛날에 두예(杜預)는 『좌전(左傳)』에 심취하는 버릇이 있었고, 왕제(王濟)는 말(馬)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으며, 저는 돈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임금이 크게 웃으면서 순을 더욱 마음에 두었다.** → 임금이 사리분별력을 잃었음을 드러냄. ↳ 국순의 말을 통해 술이 지닌 부정적 면모(문제점)가 드러남.

일찍이 순이 임금의 면전에서 보고를 했는데, 순은 평소에 입내가 있었다. 임금이 그것을 싫어해 순에게 “그대는 나이가 많고 기운이 고갈되어 나의 쓰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그러자 순은 **관(冠)을 벗고** 사죄하기를 “제가 받은 관직을 사양하지 않으면 임

금님을 속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셔서 제가 만족한 상태에서 그만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순을 부축해서 나가도록 했다.** 순은 집으로 돌아온 뒤, 갑자기 병이 생겨서 그날 저녁에 죽었다. ↳ 임금이 순의 요청을 들어주는 모습. ↳ 벼슬에서 사직함.

순은 아들은 없었고, 친척 동생인 청(淸)이 당나라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내공봉(內供奉)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의 자손이 중국에서 다시 번성하게 되었다. ↳ 모(牟)

**사신(史臣)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국씨의 선조는 백성들에게 공이 있었고, 청렴결백을 자손들에게 남겼다. 예를 들어 창(嘗)\*은 사신(史臣)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하는 가전체의 특징. 주인공의 행적에 대한 사신(작가)의 논평이 직접 드러남.

주나라에서 아름다운 덕을 하늘에 이르도록 했으니, **할아버지의 풍도가 있었다.** 그러나 **순은 괘병(愾瓶)의 지혜**로 가난한 집안에서

↳ 국순의 90대조인 '모(牟)'의 기풍. ↳ 작은 지혜. ↳ 재상이 되어, 임금이 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금으로 사방을 떨어 순을 선방'한 것을 의미함.

**태어나, 일찍 금 그릇의 선거에 뽑혀 술 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하면서**도,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폐

↳ 순이 조정에 진출하여 임금 곁에서 머물렀음을 의미함. ↳ 순에 대한 사신의 비판적인 평가. 계세징인(戒世懲人):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함.)이라는 교훈성이 드러남.

**지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니, 그로 인해 왕실이 혼란해지고 없어져도 붙잡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를 만들었다. 거원(巨源)의 말이 정말 믿을 만하구나.”** ↳ 사신(史臣)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하는 가전체의 특징. 주인공의 행적에 대한 사신(작가)의 논평이 직접 드러남.

- \* 안거: 노약자나 부녀자가 앉아서 타고 갈 수 있게 만든 수레.
- \* 섭법사: 중국 당나라 때의 도사. 도술로 술독을 사람으로 변하게 한 뒤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함.
- \* 산도: 중국 진(晉)나라 때의 학자·정치가. 죽림칠현(竹林七賢) 중 한 사람으로 자(字)는 거원(巨源)임.
- \* 청주종사: 배꼽 밑까지 시원하게 넘어가는 좋은 술. '높은 벼슬'을 뜻함.
- \* 평원독우: 명치 위에 머물러 숨이 막히는 좋지 않은 술. '낮은 벼슬'을 뜻함.
- \* 작: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사 때 쓰던 술잔.
- \* 창: 제사의 강신(降神)에 사용하는 술.

## 작품의 특징

- 술을 의인화하는 우의적 기법을 사용함.
- 술의 부정적 모습을 통해 타락한 간신을 풍자함.
- 술의 양면적 모습이 모두 제시되어 있음.
-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의 전기(傳記)적 구성을 취함.
-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냄. (순이 섭법사와의 담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계기, 산도의 국순에 대한 평가, 청주종사(높은 벼슬)에서 평원독우(낮은 벼슬)로 강등되었을 때의 국순의 반응, 관상가가 국순의 미래를 예언한 일 등을 열거)
- 계세징인(戒世懲人: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함.)의 교훈성이 드러남.
- 이규보의 '국순생전'에 영향을 줌.



## 박지원, 「호질(虎叱)」

- 갈래 : 고전소설, 한문소설, 단편소설, 풍자소설
- 성격 : 풍자적, 해학적, 우의적, 우화적
- 제재 : 양반의 허위 의식
- 주제 : 양반의 위선과 부도덕성 비판.
- 인물 :

북괵 선생: 당대의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선비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

범: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의인화된 인물.

- ‘범’의 상징성 :

가전(假傳)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傳)의 형식으로 서술한 글로서 인물의 가계와 성품, 생애, 공과(功過)등을 ‘가계 - 행적 - 논평’이라는 틀 속에 담아내었다. 내용상으로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세상을 경계(警戒)하려는 성격이 강해 교훈성을 지닌다.

### #EBS

#### 해제

이 작품은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실려 있는 한문 소설이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물인 북괵 선생과 동리자를 등장시켜 두 인물의 위선을 꼬집는 한편, 의인화된 동물 범의 입을 통해 양반 계층의 부패한 도덕관념과 허위 의식,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있다. 작품의 초반에는 범에게 먹이를 추천하는 악귀들이 등장하여 인간의 각 부류를 언급하는데, 선비들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을로 내려온 범을 만난 북괵 선생이 보이는 비굴한 모습과 이를 꾸짖는 범의 연설을 통해 양반 계층과 선비들에 대한 비판은 절정에 달하고, 범이 사라지고 난 걸 안 북괵 선생이 농부 앞에서 보이는 허세 가득한 모습은 양반층에 대한 풍자를 절묘하게 보여 준다.

#### 주제

양반의 위선과 부도덕성 비판

#### 전체 줄거리

먹잇감을 찾는 범에게 각종 악귀들이 나타나 인간의 각 부류를 언급하며 평한다. 선비의 이중적 면모를 비난하던 범은 마을로 내려간다. 그 마을에는 학식이 높아 존경받는 북괵 선생과 독수공방하는 과부 동리자가 있었는데, 그날 밤 둘은 동리자의 집에서 밀회를 즐기다가 동리자의 다섯 아들에게 만남을 들킬 위협에 놓인다. 이에 급히 도망치던 북괵 선생은 똥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때마침 마을에 내려온 범과 마주치게 되고, 범은 이런 북괵 선생의 모습을 보고 선비들의 위선과 과렴치함에 대하여 신랄하게 꾸짖는다. 이에 북괵 선생은 목숨을 애걸하다가 범이 사라진 줄도 모른 채로 날이 밝는다. 그러던 중 머리를 조아린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는 농부에게 또다시 허세 가득한 변명을 하며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 박지원, 「호질(虎叱)」

[앞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은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한밤중에** 과부와 밀회를 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한다. 때마침 범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 북곽 선생과 동리자가 만나는 시간이자 인물들의 명성과 반대되는 목암이 표출되는 시간으로,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위선이 드러나는 시간임.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뺨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추

자신을 알아볼까 봐 두려워 위장함. 땀땀하지 못함을 숨기려는 마음에서 한 행동.

**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위(과부와와 밀회를 들켜)에서 벗어나려다가 실수하는 모습. 어리석고 무스팜스러운 모습.

회화화

↳ 위선적 인물인 북곽 선생에 대한 풍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의인화 된 인물.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 중의적. 똥이 묻은 상대의 외면에 대해서도 터럽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유학자답지 못한 내면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하였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 회화화. 범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북곽 선생의 모습 풍자.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大人)은 그 가족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

↳ 과장된 말하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짐승의 덕을 과장함. 물리적 힘이 세 범에게 잡아먹힐 것이 두려워 비겁한 모습을 보임.

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 살아 남으려는 북곽 선생의 아첨.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물리적 힘이 두려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겸손. 위기를 모면하려 아첨하는 모습. 임기응변(臨機應變)

↳ 제목의 의미.

“가까이 오지 말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애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 동음이의어(선비 유(儒), 아첨할 유(諛))에 의한 언어유희. 북곽 선생의 말을 아첨이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님.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 하겠느냐

↳ 교언역색(巧言令色)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내가 하는 수천수만 마디의 말들은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四綱)에서 벗어나지 않는

↳ 인간들이 걸으려는 오류와 사강(四綱: 예의명치)을 말하지만 실천이 뒤따라지 않고 있음을 말하면서 인간의 부도덕함을 비판.

다. 그런데도 **도읍 일대에 형벌을 받아 코가 베였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刺字)한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류를 따르지 않**

↳ 윤리 규범을 어겨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음. 윤리 규범과 형벌 제도가 있음에도 범죄와 악행이 계속되는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

**은 사람들이다.**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나 톱을 날마다 쉴 새 없이 제공해도 저들의 악을 막을 수 없으나,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느니라.** 이로써 보자면 범의 본성이 어찌 사람보다 낮지 않겠느냐 → 설의

↳ 형벌의 제도가 없는 동물 사회의 모습을 언급하며 형벌이 있음에도 범죄와 악행이 계속되는 인간들과 대조하여 인간들이 영등함을 비판.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며,** 새

↳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술을 탐가 먹는 인간을 꼬집어 비판.

끼를 배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에게 잔인하게 굴지도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되, 한 번도 먹고사는 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투는 적이 없다.** 그러니 **범의 도의야말로 어찌 광명정대하지 아니한가!**

↳ 인간들은 끝없이 남과 다투는 것을 비판.

↳ 규범을 지키는 범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범 사회의 엄격한 규범을 강조함. 설의.

↳ 인간이 범에게 대해 내린 평가가 부당하다는 점을 질문을 통해 밝힘.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지 않지만,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라고 부른다. **이 어찌 노루나 사슴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으나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 범을 원수와 부르는 인간들의 평가는 인간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일 뿐, 일관된 도덕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음. 설의.

하지만 만약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날마다 도살하여 부엌을 가득 채우면서 쇠뿔이나 말의 갈기조차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도 마침내 또 나의 노루나 사슴까지 침탈하여,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고 들에서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니, 만약 하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기로 한다면,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놓아주어야 되겠느냐

무릇 제 것이 아닌데도 가지는 것을 ‘도(盜)’라 부르고,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 부른다. 너희가 하는 짓이란 밤낮으로 허겁지겁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뺏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는 **돈을 ‘형님’이라 부르**

↳ 춘추 시대 모기가 출세하기 위해 아내를 죽인 고사.

인간 사회의 탐욕과 부도덕성.

↳ 예로부터 염전을 공방형(孔方兄), 가정(家兄)이라 함. 배금주의.

**거나, 아내를 죽이고 장수 자리를 얻으니,** 인륜 도덕을 다시 논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런 데다 또 **황충(蝗蟲)에게서 먹을 것을 빼**

↳ 메뚜기

앗고, 누에한테서 옷을 빼앗으며, 벌을 물리치고 꿀을 빼앗는다. → 나약한 벌레들의 것까지 약탈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탐욕 비판.

↳ 먹을 것에 급급해하지 않는 범의 습성과 대조.

범은 한 번도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진실로 같은 무리에게 차마 하지 못할 짓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중략)



## 박지원, 「호질(虎叱)」

북곽 선생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은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넘죽 엎드리고, 물리나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면서, “『맹자』에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재계하면 하느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 맹자를 인용하여 범에게 아부하고 목숨을 구하려는 비굴한 태도. 곡학아세(曲學阿世).

하었다. 이어서 숨을 죽이고 살며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한참 지나도 아무런 명령이 없었다. **실로 황공해하며 두 손 맞잡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나서 고개를 쳐들고 살펴보았더니, 동쪽이 흰히 밝았고 범은 이미 가 버리고 없었다. 북곽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여 웃음을 유발함.

↑ 근면하고 순수한 인물. 북곽 선생 위선적인 모습과 대조.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북곽 선생의 모습을 부각하는 인용.

**아침에 발을 갈던 어떤 농부가,**

↓ 아침이 되어 범이 사라지자 북곽 선생은 농부에게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행동을 둘러대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북곽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임.

“선생님은 어째서 새벽부터 들에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북곽 선생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들었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으나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으나 하지만 감히 조심스레 견지 않을 수 없네.’라고 말이다.**” → 범의 말을 듣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북곽 선생의 위선적 태도가 드러남.

↓ ‘하늘이 ~ 않을 수 없네.’는 「시경」의 구절로, 북곽 선생은 ‘내 들었노라’라고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음을 밝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이자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고 있음.

\*유(諛): 아침할 유.



## 작품의 특징

- 의인화된 동물이 인간의 부정적인 행위를 비판함으로써 주제를 전달함.
- 우의적, 우화적 수법을 사용함.
- 대화를 통해 유학자의 위선적 태도와 허위의식을 부각함.
- 조선 후기 양반들의 이중적 모습을 ‘범’의 입을 빌려 간접적으로 비판함.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범’의 주장을 구체화함.
- 등장인물의 부정적 모습을 회화화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음.
- 당대 사회의 부조리함을 조롱하는 풍자적 기법을 사용하여 비판함.
-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주제를 강조함.
-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부정적인 삶에 대해 비판함.



## 심의, 「대관재몽유록(大觀齋夢遊錄)」

- 갈래 : 고전소설, 몽유록 소설
- 성격 : 향락적, 반동적, 이념옹호적
- 주제 : 꿈속에서 문인들로 구성된 이상 세계를 경험함
- 인물 :

심 의: 현실 세계에서의 서술자이자 주인공.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지 못하고 벼슬에 오르지 못함. 초야에 묻혀 지내며 부귀영화를 누리 지 못함.

심 아무개(=심 모): 꿈속 세계에서의 서술자이자 주인공. 능력을 발휘하고 높은 벼슬에 오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청렴하고 검소함.

### • 구성 :

환몽 구조



## #EBS

###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종 때 심의가 지은 한문 소설로, ‘대관 재기몽’ 또는 ‘몽기’라고도 불린다. 희필(戲筆, 장난삼아 지은 시문)의 성격이 강한 몽유록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 심의가 주인공 ‘심 아무개’로 등장하며, 꿈속 세계에 들어가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탄핵을 받아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려진다. 최치원, 이색, 이규보, 김시습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들을 등장시켜 문인이 주도하는 왕국의 모습을 보여 준다. 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을 형상화하여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 주제

꿈속에서 문인들로 구성된 이상 세계를 경험함.

### 전체 줄거리

현실 세계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문인 심의가 꿈속 세계에 들어가 천자 최치원의 총애를 받고 관직을 제수받는다. 천자는 최치원, 수상은 을지문덕, 좌우상은 이규보와 이제현, 국가의 요직은 이인으로, 정몽주 등이 맡고 있으며 이색은 대제학을 맡고 있다. 심의는 자신 의 시론을 인정받고, 김시습의 난을 격퇴하는 등 공을 세워 높은 지위에 오르지만, 탄핵을 받아 결국 인간 세계로 돌아온다.



# 심의, 「대관재몽유록(大觀齋夢遊錄)」

[앞부분의 줄거리]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시대를 한탄하며 지내던 신비 심의**가 팔을 베고 잠이 들어 **꿈속 세계로 들어가는데, 천자는**

↖ 작가와 동명의 주인공으로 서술자이자 작가가 자신의 동일성과 의식을 유지한 채 만들어낸 주인공.  
↘ 현실에 대한 불만을 투영함. ↖ 입몽(入夢).

**최치원**, 수상은 을지문덕, 좌우상은 이규보와 이체현, **대제학은 이색**, 각각의 관직도 유명한 문인들이 맡고 있는 왕국이었다. 심의

↖ 은둔하여 제 뜻을 펼치지 못한 문인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함. ↘ 서로 다른 시기에 실존했던 인물들이지만, 이상적 문인 왕국을 그려 내기 위해 동시대의 인물로 설정함.

또한 천자의 총애를 받게 되어 금자광록대부와 벽부학사라는 관직을 맡게 된다.

↖ 최치원 **황제**가 변란을 듣고 매우 근심하여 거의 병이 될 지경이었다. 경내의 백성을 다 모으고 무기 창고의 무기를 다 꺼내어 **친정**을 하여 토벌하고자 했다. 대제학 이색이 비밀히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벽부학사 심 아무개**를 보내어 순리를 거스른 행위를 깨우치게 하시면, 군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스스로 그치게 할

↖ = 심 모. 꿈속 세계에서 '심의'

것이니, 옥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천자가 **재계**하고 장대를 쌓고 나를 대장군에 임명하며 말씀하셨다.

↖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不淨)한 일을 멀리함.

“장군에게 몇만의 군사를 임의로 쓰게 하노라!”

나는 명을 듣고 무릎을 쳤으며, 충성심이 우뚝 솟아 나도 모르게 호언장담을 하였다.

“**신은 무기란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들었기에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달밤에 휘파람으로 울조리는 남모르는 방법**이 있어

↖ 무(武)보다 문(文)을 중시하는 관념을 드러냄. ↘ 시문과 글로 적을 대적할 계획을 밝힘.

추운 겨울에 우레를 일으키고 더운 여름에 얼음을 만들며, 짐승들을 거두어 희롱하고, 귀신을 삼키고 뱀을 수 있어, 앉아서 만 명의 적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천자께서는 **공경**을 거느리고 북쪽 교외로 행차하여 **길제시**를 베풀어 **진별**하고는 비단 주머니 한 개를 꺼내어 그것을 차게 하시었다.

↖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가는 길이 편만하기를 빌며 지내는 제사. ↘ 잔치를 베풀어 작별한다는 뜻으로, 보내는 쪽에서 예를 차려 작별함을 이르는 말.

나는 감사하여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전쟁은 신속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땅히 난적을 바람이 불면 풀이 쏠리듯이 감화를 시킬 뿐입니다. 어찌 번거롭게 전쟁을 피하겠습니까!”

↖ 단기 필마: 홀로 말 한 필에 올라 적진에 뛰어 들.

바로 그날 **단기**로 길을 떠났는데, 다만 **침두노\*** 몇 명만 데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다. 열흘이 채 못 되어 적의 성채로 달려갔더니 무기가 햇빛에 번쩍이며 세 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내가 기를 돋우어 입술을 벌리고 한 번 휘파람을 불었더니 적은 용기를 잃었고, 두 번 불었더니 만 명의 기병이 북쪽으로 달아났다. 휘파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채색 구름이 자욱하게 가리었고, 난새와 봉이 엇갈리어 날았으며, 바다와 산이 변색하고 천지가 떨리고 흔들렸다. 몇 되지 않은 모든 반적들은 바람에 쓰러지듯이 달아나고 흩어졌다.

**적장 김시습은 두 손을 앞으로 묶고 투항**하며 말했다. → 심 아무개(심 모)가 침두노(분) 몇 명만 데리고 가 김시습의 반란을 제압하는 상황 설정은 **토황소적문**을 지었던 최치원의 일화와 유사 → 문인인 최치원의 삶을 궁정적으로 평가함을 드러냄.

↖ 김시습의 투항을 받는 것이 매우 간단한 일로 표현됨. ↘ 문인인 하나 김시습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작가의 주관적 판단이 투영됨.

“뜻밖에 사단(詞壇)\*의 노장 심 공께서 오셨구려!”

나는 노포를 걸고 「**침개가**」를 불렀다. 천자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내리셨으며, 좌우를 돌아보며,

“**옛날에 긴 휘파람으로 호기를 물리친 일이 있었거늘, 이제 경에게서 그것을 보았노라.**” → 심 아무개(심 모)의 행동이 역사적 사례와 관련이 있음을 드러냄.

하고는, **배식사문 경륜일시 진국공신의 호를 내리게 하고, 안동백에 봉했으며, 몇만의 큰 상을 내리시고 김시습을 폐하여 좌선을 삼았다.** ↖ 심 아무개(심 모)가 공을 인정받아 높은 지위와 재물을 얻음.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가 더욱 커서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에 들어오며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벼슬한 지 10년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길러 문벌이 빛났으며, **많은 녹을 받아 집안 재산이 넘쳤다.** 공경 중에 누가 명함을 내고 보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번이

↖ 꿈속 세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 서술자가 현실 세계에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투영됨.

“**신하 된 도리로 사사로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 공과 사를 구분하여 행동함.

하고는 읍하고 사양했다. 조정에 있으면 모든 일을 맡아보았고 시를 읊었다. 사치가 몸에 배었지만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겠는가.** 나는 늘 우승상 이규보를 허물하여 대궐에 가서 항소하기를,

↖ 부유함에 익숙해지고서도 청렴과 검소를 기본으로 삼아 사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음.

“**이 아무개는 문장이 경솔부박**하며 나약하고 **빠대가 없어, 비록 귀신처럼 날래지만 귀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적지 않습니다.”

↖ = 경조부박(輕躁浮薄): 경솔하고 방정맞으며 천박하고 가볍다는 뜻으로, 언행이 진솔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의미. ↘ 김 아무개(심 모)가 이규보를 탄핵함. 이규보의 문장력을 낮다고 평가함. 문장 실력이 곧 그 사람의 인물됨을 나타낸다는 발상이 투영됨.

라고 하였더니 **천자께서 그 아뢰는 것이 옳다 하여 나에게 오거서(五車書)\*를 내리고 영경연으로 특진을 시키시었다.**

↖ 천자께서 심 아무개(심 모)의 상소를 받아들임.

(중략)

며칠이 지나 닳 시장(侍講)\*을 마치고, 천자께서 정색을 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소차 하나를 보라고 하셨는데 바로 한림 선생이 나를 탄핵하는 상소문이었다.



## 심의, 「대관재몽유록(大觀齋夢遊錄)」

“심 모는 속세의 허물을 벗지 못하여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나머지는 적지 않습니다.”

↳ 한림 선생이 심 아무개(심 모)를 탄핵함. 사사로운 욕심이 지나친 사람으로 평가함. 천자의 결실을 이끌어내는 계기.

라고 하였다. 천자께서는,

“한때의 부질없는 논의를 어찌 마음에 두리오!”

하고는 **대관 선생이란 호**를 내리고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손에 술잔을 잡고 [나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 '심의'가 꿈속 내용을 기록한 '대관재'와 연결되므로 현실 세계와 꿈속 세계의 관련성을 높이는 장치.

“풀과 나무며 산과 강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경의 첩 옥란은 다시 주식(酒食)을 맡게 되어

↳ 서술자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음을 암시하는 장치.

내 명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공은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머리를 섬돌에 부딪치고 하직하였는데, 눈물이 옷을 적시었다. 집안 식구를 돌아보아 생각하니 차마 서로 떠날 수가 없었다. **조**

**금 있으니 상국 이색**이 등을 쓰다듬으며 협실로 꺾어 들어서 나를 난초 탕에 목욕시키고는 **금 칼로** 나의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갈아**

↳ 심 아무개(심 모)가 꿈을 깨는 것을 돕는 인물. 각종 과정

심 아무개(심 모)를 현실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행위.

놓은 먹물 몇 말을 들어부으며 말했다.

“**40여 년을 기다리면** 꼭 여기에 다시 돌아와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 갑자기 깨니, 배가 복처럼 부풀어 올랐고, 잔등은 가물가물하는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 앓는 소리를 할**

↳ 각몽(覺夢). 현실로 돌아옴. 잠을 깨는 과정을 꿈속 상황과 연결 지음.

**뿐이었다.** 불만스런 현실 모습으로, 부귀명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냄.

아! 사람이 세상에 나서 **궁달(窮達)**은 팔자소관이니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 것인가! **괴이쩍은 이야기**를 드러내어 꿈에 껴있던 일

↳ 빈궁(가난)과 명달(부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꿈속에서 겪은 일을 이룸.

**을 적는다.** → 작가는 꿈속 세계가 자신을 대변하는 서술자인 '심의'가 꿈 꿈을 기록한 것임을 밝힘.

가정(嘉靖) 8년 12월 상한에 심의는 대관재에서 쓰다.

↳ '심의'가 '대관재'에서 '꿈'을 밝혀 꿈속 세계와 현실 세계의 연관성을 부각함.

\*첨두노: 여기서는 글을 쓰는 '붓'을 이룸.

\*사단: 문인(文人)들의 사회. 문단.

\*오거서: 다섯 수레에 실을 만한 책. 많은 장서.

\*시강: 왕이나 동궁 앞에서 학문을 강의하던 일. 또는 그런 사람.



## 작품의 특징

- 정치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이상적인 문인왕국(文人王國)을 그림.
- '이념제시형(理念提示型)' 몽유록의 최초 작품.
- 꿈속에서나 꿈을 깬 뒤에도 1인칭 자기 체험고백의 서술자가 제시됨.
- 입몽과 각몽의 과정이 다른 작품에 비하여 용의주도하게 설정됨.
- 천상이라는 공간을 설정하여 작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를 표상함.